

골롬반 선교

2024년 봄호 vol.127

성령께서는 우리의 힘, 우리가 행하는 복음 선포의 숨결이시며 사도적 열성의 원천이십니다.
오소서, 성령님! - 교황 프란치스코



남미 페루에서 선교하고 있는 지원사제 부재환 신부(제주교구)와 선교 실습 중인 이정락 신학생(맨 오른쪽)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不知不觉(buzhibujue, 부지불식)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 한국지부장



머리에 재를 얹으며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예수님의 선포로써 사순시기를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알렐루야를 노래하며 만방에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일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혹시나 예수님의 부활이 부지불식간에 다가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모범이시며 스승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당신 나라가 다가왔음을 부활에 앞서 선포하시며 모두가 의식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부지불식간에 접하길 꺼리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2년 전 제가 지부장 소임을 맡고 나서 많은 분께서 저에게 지부가 나아갈 길, 즉 선교 전망을 물었을 때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팬데믹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선교 현장에서 들어와 아직 한국 교회와 한국지부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좀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성령의 이끄심에 이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지부에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하시는 성

령님의 인도에 따라 2022년 지부총회를 “친교” 정신에 맞추어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동료 선교사들과 지부의 많은 이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체험한 친교정신이 세계 교회가 현재 진행형으로 체험하는 시노달리타스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와 함께 체험한 이 여정을 멈출 수 없기에 이듬해 사목 방향을 “참여”로 설정하고 힘 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체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세계 교회의 움직임-시노달리타스, (친교·참여·사명)-에 발맞춰 “사명(선교)”을 한국지부의 방향으로 아주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지불식간이지만, 많은 이와 공통으로 체험한, 시노달리타스 여정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셨다는 성찰의 때를 한국지부는 놓치지 않았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시노달리타스에서 “친교”는 사교적 친교에 그치지 않음을 교황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노달리타스에서 “참여” 역시도 서로의 초대를 배제하는 일방적 참여가 아니라는 생각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시노달리타스에서 “선교-사명”도 기쁜 소식만을 만방에 전했던 기존 선교 활동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선교-사명에 응답하는 일인 한 개인의 단순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뼈저

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 개인적 깨달음이 아닌 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동료 선교사들을 포함해 많은 이와 함께한 친교와 참여의 공통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체험하게 될 선교-사명에 대해 더더욱 큰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체험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실지 호기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체험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고 있는 많은 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지부의 꿈과 희망의 지평을 더욱 넓혀갑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예수님께서 늘 계셨던 곳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곳은 바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 한국지부의 선교-사명을 응원해 주시고, 이 길을 동반하시는 여러분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5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6년 만에 열리는 본회 세계총회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느님 뜻에 따라 선교 전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늘 계셨던 그곳에 우리 선교회, 특히 한국지부가 함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분은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의 중심입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02 마음을 여는 글 | 서경희 스테파노 부지불식
- 시노달리타스 |
- 04 박요섭 요셉, 성요섭 요셉, 심홍석 암브로시오 선교하는 기쁨
- 07 최희정 세라피나 필리핀 선교 체험을 다녀와서
- 10 『골롬반선교』 편집팀 저희 우정이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 12 말씀 산책 | 이어돈 미카엘 그분을 보셨습니까?
- 14 생태적 회심 | 에이미 에체베리아 꽃 피는 봄이 오면
- 16 미얀마 이야기 | 이제훈 아오스딩 일상적인 삶에서의 거룩함
- 18 평신도선교사 | 이경자 크리스티나 함께 걷기로 선택할 의무
- 20 지원사제 | 부재환 프란치스코 산으로 간, 제주 해녀 아들의 편지
- 22 필리핀 이야기 | 권태문 사도 요한 참 치유의 첫걸음
- 24 성소 이야기 | 권세오 곤잘로 함께 식별의 여정을 걸어요

- 26 후원회
- 28 골롬반 소식



시노달리타스

선교하는 기쁨

박요섭 요셉 · 성요섭 요셉 ·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학생

첫 해외선교 발령(FMA, First Mission Assignment)을 받고 2022년에 칠레로 파견되었던 박요섭 요셉·성요섭 요셉·심홍석 암브로시오 신학생이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콜롬반회 선교사가 활동하는 지역에 가서 본당 교리교육, 난민 이주민 쉼터, 난민촌 방문, 학교 종교 수업 등을 하면서 지역교회와 선교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있을 부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세 신학생이 칠레에서 만난 하느님, 그리고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선교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칠레 전통 중 하나인 종교 춤 행사에서

저희는 칠레에 도착해서 5개월 정도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각자 소임지로 떠나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수도 산티아고의 남쪽, 엘 보스케라는 지역의 성 콜롬반 본당에서 살았습니다. 7개 공소로 구성된 본당으로 콜롬반회가 설립했고 올해 1월까지 콜롬반회 사제들이 사목하였습니다. 호주 출신 단 할딩 신부님과 함께 다니면서 고별식, 스카우트, 이민자의 집, 여름 캠프, 안데스의 성녀 데레사 도보 순례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민자들과 깊이 만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티아고 외곽 푸엔테 알토에 있는 산 마티아스 본당에서 콜롬반 신부님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남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30여 년 전부터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된 지역인데요. 콜롬반 신부님들이 그곳에 본당을 만들고, 사목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곳입니다.

칠레 북쪽 사막 지역인 알토 오스피시오에 있는 예수 성심 본당에서 살았습니다. 이끼끼라는 해안 도시 위쪽에 분지 형태로 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난민촌들이 많아요. 전기와 물이 없는 곳부터 어느 정도 발전된 난민촌도 있습니다. 저는 난민촌 사람들을 동반하는 수녀님들과 주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난민촌은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전염병에 취약하고 영양실조로 임부가 유산하기도 하고, 열 살짜리 아이가 돈을 벌기 위해 도로에서 차창을 닦기도 하고요.

어느 날 수녀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난민촌 아이들 셋이 가스 폭발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두 살, 네 살, 일곱 살이었어요. 아빠는 일하러 가고 엄마는 보건소에 가려고, 사막을 30분 가로질러 버스를 타야 하는 길이라 아이들을 집에 두고 간 사이에 일을 당한 것이지요. 장례비조차 없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안타까웠던 적은 있어도 그토록 너무나도 마음 아팠던 체험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그리스도, 공명하시는 하느님을 만났고 타인의 아픔에 제 마음이 열리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들이 천사가 되어 지금도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라도 주고 싶어 주기적으로 방문하곤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오기 전 몇 달을 산티아고 내 콜롬반회의 옛 신학원 자리인 보비오에서 살았습니다. 보비오에는 이민자들이 묵고 쉴 수 있는 환대의 집과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난민 쉼터에서 난민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들의 참담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울하고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들이 자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고, 저희와 대화하면서 긴장을 내려놓는 걸 보면서 기뻛고,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본당에도 많은 이주민이 있는데, 봉사자들은 국적 상관없이 서로 잘 어울려 지냅니다. 공소들 중 한 곳은 일주일에 한 번 난민촌에 전달할 점심을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후원이 끊겨 중단되었습니다.) 신자들이 난민촌 엄마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 만드는 봉사를 했어요. 공소 평신도 코디네이터가 오랫동안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말 없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밥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있던 본당에도 외국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들 가정의 아이들이 본당에서 또래 친구들과 세례와 견진을 같이 받고, 칠레 축제에도 칠레 친구들과 같이 참여하면서 아이들끼리 먼저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들도 더 쉽게 친구가 되었고요. 제가 있었던 본당의 어느 공소에 도둑이 들었대요. 신자들은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판자촌 사람들을 의심하고

콜롬반회 선교지인 칠레 북쪽 알토 오스피시오를 방문했을 때,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해 있다. 왼쪽부터 박요섭 요셉, 성요섭 요셉,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학생이다.



필리핀 선교 체험을 다녀와서

최희정 세라피나

서울대교구 세종로성당 청년이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대학에서 역사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2024년 1월, 한국지부가 주관한 단기선교체험 프로그램 SIM에 참가,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골롬반 선교 지역을 다녀왔다.



홈스테이 가정의 아주머니와 함께

순간, 제 신앙심이 정말로 깊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사를 가지 못한 날도 있고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핑펑거리만 찾는 저를 보면서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느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하느님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10월, 주일 아침 미사를 드린 후 성당을 나서면서 평소 같으면 주보를 주보함에 넣고 나왔겠지만, 그날은 웬지 모르게 손에 들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주보를 찬찬히 읽어보는데 *〈골롬반 필리핀 단기선교체험〉 모집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해외선교에 관심이 많았고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저는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신청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전송했습니다. "선착순 5명" 문구에 조마조마해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며칠 후 선발되었다는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 안에서 부르심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힘들게 사는 이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6년째 유니세프를 후원하면서 전쟁, 폭력, 빈곤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아동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고,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심 깊은 가족 덕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 위에서 만난 동반자들

9일 동안의 선교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한국 부침개 맛을
무척 궁금해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솜씨를
발휘한 날

불편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소에서 판자촌
을 방문할 기회를 갖
게 되었고 막상 이주민들 사

는 모습을 가서 보니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주민들과 기존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울리고 함께하다 보면 어느덧 같은 동네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선교 실습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은총이었습니다. 그중 교우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첫째로 꼽고 싶습니다. 돌아와서도 저는 칠레에서 만났던 본당 교우분들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 부를 때도 아기, 보물 같은 애칭으로 사랑을 담아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체험은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특별한 체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당 교우분들의 사랑이 선교 실습하는 동안 저를 선교사로 키웠습니다.

선교 활동하면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마냥 받아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에

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 할 때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랑을 온전히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크게 체험한 것이죠. 언어도 서툴고 답답하셨을 텐데 어떻게든 제 말을 알아들으려고 귀 기울이시고, 하나라도 더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아, 실은 내 말을 알아들으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알아듣고자 노력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학원에서 배우기를 환대가 하느님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는데, 제가 나그네가 되어 떠났더니 그 길에서 저를 환대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분들에게는 하느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환대를 받으면서 큰 사랑을 하느님께 받고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당에 나오는 이든 아니든 만났던 모든 이 안에서 사랑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저희는 갔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귀 기울이고 싶어 가능한 한 본당 밖으로 많이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제 안에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마음을 열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성령께 희망(望)을 걸고 굳은 믿음(信) 안에서 사랑(愛)하면서 사는 것, 그 신망애의 삶이 선교의 삶을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선교가 하느님의 일이 되려면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본당 주일학교에서





**** 아에타족:** 북서쪽 루손섬 여러 지역의 필리핀 소수 원주민이며 깊은 숲속에 흩어져 산다. 프레다재단은 아에타족 주민들이 유기농 망고를 재배하여 해외에 직접 판매하도록 공정무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프레다:** 골롬반회 셰이 콜린(Shay Cullen) 신부가 1974년 설립한 재단으로 그는 지금도 그곳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프레다는 특별히 여성과 아동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① 프레다센터를 방문했을 때 ② 아에타 부족 주민들은 참가자들을 환대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주려고 했다. ③ 아에타 부족 초등학교에 갔을 때 ④ 홈스테이 가정에 가는 길 ⑤ 양초를 제작하며 자립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작업장

****아에타 부족과 만남입니다.** 이들은 필리핀 북서쪽 루손섬 올롱가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레다**에서 출발해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간 후 도로가 끊긴 곳부터 걸어서 갔습니다. 시냇물과 돌, 풀과 나무가 무성한 가파른 숲속을 30분 정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산길에서 만난 아에타족 할머니는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시고, 우리를 도와주려 따라나섰습니다. 또 더 산길을 오르다가 만난 아저씨 한 분도 하던 일을 멈추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길 안내를 자청했습니다. 만약 저였으면 당장 해야 할 내 일에 급급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하던 일을 멈추고 남을 위해 봉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한대, 서로를 향한 마음

마을에 공정무역을 하는 유기농 망고 농장이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재배 철이 아니어서 망고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것을 눈치챈는지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카사바 농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큰 카사바 나무를 뽑아 뿌리를 낫으로 자르고, 밑에 달린 카사바를 채취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속으로 ‘이걸 어떻게 먹지?’ 하

는데 아주머니께서 술을 가져와서 카사바를 바나나와 같이 찌 주었습니다. 고구마와 비슷한 식감인 카사바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익은 바나나로 찌야 더 맛있는 데 덜 익은 걸 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이번에는 파파야를 따 와서 바로 잘라 주셨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 주려고 하는 그분들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에타 부족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부족 고유 언어를 필리핀 공용어인 타갈로그어로, 이를 영어로, 또 한국어로 통역해야 합니다. 세 번의 통역을 거쳤지만 생생하게 아에타 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방인의 잣대가 아닌 그분들 시각에서 그분들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망고는 못 먹었지만, 그분들 삶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대부분은 부족의 전통 신앙을 가졌고, 일부만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주님과 가까운 분들이라고 느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을 닮아 종교도 모습도 다른 이방인까지 포용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프레다센터의 셰이 콜린 신

부님(골롬반회)은 아에타족의 신앙을 존중하며 가톨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부님에게서 신앙적 포용성과 유연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하느님의 선물

필리핀 선교 체험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지 사람들과 골롬반 선교사들 등 여러 사람을 만나 정을 나누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모니 속에 함께 뛰어 들어간 동료 참가자들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인솔하신 오기백 신부님, 동료 6명과 함께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만날 때도 선교 여행에서 배운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을 대할 때도 그들이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소중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소박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값진 선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골롬반 선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숲속에 위치한 아에타 부족 마을로 가는 길



* 심SIM(Society Invitation to Mission)

젊은이들을 골롬반 선교에 초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단기선교체험 및 순례(1주~4주), 골롬반 인턴십(1~3달), 골롬반 자원봉사(3~12달, 1회 갱신 가능) 프로그램이 있다. 그중에서 <골롬반 단기선교체험>을 2024년 1월 16일~23일 필리핀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 1월 15일 한국지부 본부에서 지부장 서경희 신부 주례로 파견미사
- 16일 마닐라에 도착해 필리핀지부의 환영을 받았다.
- 17일 필리핀 원주민 아에타 부족 방문
아에타의 문화, 역사, 생활을 듣고 원주민 어린이들의 초등학교를 찾아 간식을 나누었다.
- 18일 올롱가포에 있는 프레다센터 방문
감금당했다가 구조된 소년들을 위한 프레다홈에 이어 프레다센터를 방문했다. 매춘 업소에서 성 노예로 잡혀있었거나 포주, 이웃, 부모 등 소아성애자로부터 학대받다 구조된 소년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곳이다. 최연소 아동이 7살이었다. 참가자들은 아이들과 간식을 만들어 먹고 이야기 나누며 같이 놀았다.
- 19일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가 마닐라 노발리체 지역 어머니들과 함께 시작한 자립 활동 작업장 “작은 양초 제작 프로젝트 Light the Life”를 방문했다.
참가자들도 양초 만들기엔 일손을 보탰다.
- 20일 골롬반 본당인 마닐라 말라테 성당에 가서 주일학교 교리에 참석한 후 본당 선교 센터를 방문했다. 가난한 가정과 거리에서 노숙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날 밤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 21일 필리핀 교회의 큰 축일인 “산토 니뇨” 대축일을 맞아 미사에 참여해 필리핀 교회의 신앙 전통을 만났다.
다녀와서 골롬반 국제신학원과 평신도선교사 집을 방문했다.
- 22일 구아포 성당의 검은 나자렛 예수 성지, 마닐라 대교구 주교좌성당과 전통 시장에 갔다. 이어 마닐라 본부에 가서 골롬반회 신학생들의 첫 서약식에 참석했다.
- 23일 귀국, 다시 일상으로 파견



시노달리타스

사진 제공: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저희 우정이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 엠마우스 그리스도교 일치 기도 모임 취재기 -

『골롬반선교』 편집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천노엘 신부(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대표)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마지막 날인 1월 25일, 광주대교구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엠마우스, 광주 운암교회, 가교행복빌라, 귀일민들레집 등 그리스도를 믿는 장애인, 봉사자들과 함께 <그리스도교 일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작년에 재개하면서 세 번째 해를 맞은 올해는 가톨릭 40명, 개신교 49명 신자가 함께했습니다.

운암교회에서 사랑부(발달장애인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이현행 목사는 설교에서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귀한 보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천노엘 신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글을 낭독한 후, 지구를 지키는 노력은 사랑의 행위이며, 장애인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지역사회에도 행복을 주자고 초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모인 이 기도회에서 올해는 특별히 환경 보호를 강조하며 하느님 창조 질서 보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외침” 시간에는 대표로 김현숙 씨가 단상에 올라 장애인들의 소망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선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선교회 덕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활동하는 단체들이 본당에도 많아졌으면 합니다. 또, 함께할 봉사자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의 정점은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손잡고 노래로 바칠 때였습니다. 참석자들의 우정 어린 연대와 일치를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성경-초를 든 봉사자들을 뒤따라 천노엘 신부와 이현행 목사(운암교회)가 나란히 입장하면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다.



기도회를 마친 후

기도 모임을 마친 뒤 이현행 목사는 “주님 안에 한 마음이 되어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소망을 세상을 향해 외치며 함께하는 이 시간을 좋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30여 년 전, 개신교와 천주교 장애인들의 모임을 몇 차례 한 바 있는 천노엘 신부는 여러 사정으로 그 모임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꾸준히 개신교와 만나고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엠마우스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운암교회 신자들이 약 서른 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예배에 여러 번 참석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암교회 목사님과 상의해서 다 같이 모이는 이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지역사회와 교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사회, 그런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고 싶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 예식 때 초를 들고 입장했던 김운정 씨는 처음 예식 봉사자로 참여하여 보람 있었다면서 소망 하나를 전했습니다. “제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내어 준다면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일반 사람처럼 기

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많은 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지내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사회와 교회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할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롬반선교』는 시노달리타스의 “친교-참여-사명(선교)”을 실천하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이 세 낱말이 표어나 문자에 머물지 않는 구체적 삶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복음 선포 주체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더 큰 봉사로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시노달리타스 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진 풍요로움이 주님 안에서 친교를 이루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함께 걷자고 촉구합니다.

“일치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과 외면해도 되는 사람을 가르려는 시도는 절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함께 걷고 함께 봉사하는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2024년 1월 25일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제2주제 기도

그분을 보셨습니까?

이어돈 미카엘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수의사 겸 평신도선교사로서
1978년 파견되어 제주 성이시돌목장에서 활동했다.
이후 신학교에 입학해 86년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고 그해 한국으로 다시 파견되었다.
서울대교구에서 본당사목, 한국지부 부지부장, 신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주교구 금악성당 주임과 이시돌농촌산업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라는 믿음을 강론할 것입니다. 저는 때로 궁금합니다. 만약 신자들이 그 사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층민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건 2000년 전에만 가능했던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가능할까요?

복음에 등장한 여러 부활 이야기는 초기 신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생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어떤 언어로도 완전하게 설명하거나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경험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그 경험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루카 24,13-35)는 다른 부활 이야기들이 공유하는 여러 경험들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성경에 그 제자들

이 모두 남자라는 기술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여자들의 목격담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 위에서 두 제자는 그들 일상의 삶에서 목격한 바로 그 사건, 예루살렘에서 방금 일어난 일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그가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그 일에 관해 아는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을 자기 민족의 신앙 경험을 기록한 성경을 토대로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언가에 이끌려 그 낯선 이(예수님)를 초대해 자기들과 함께 머물자고 말합니다. 이러한 환대가 그들을 또 다른 경험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만약 그들이 낯선 이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두 제자는 ‘최후의 만찬’에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하신 다음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음식을 들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시고 그것을 배고픈 군중들과 나누셨던 일을 상기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루카 24,29).
제주 성이시돌목장 내 새미 은총의 동산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금속상이다. 사진 제공: 이어돈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두 제자는 그 여행을 반추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셨을 때 마음속 심장이 뜨거워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사건을 정치, 과학, 경제적 관점이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이를 환대하고 그와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 나눔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그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이나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경험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낯선 이를 환대하며, 기꺼이 다른 이들과 나누려고 한다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어떤 공소에 우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신부의 뜻으로 오랫동안 공소 회장을 맡았던 분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젊은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새 회장이 첫 전례를 하는 날, 물러난 회장은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공소 맨 뒤에 앉았습니다. 독서 후에 신임 공소 회장은 첫 강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론을 이어나가기 전, 전임 회장이 속삭이는 말투로 그러나 너무 크게 들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분을 보았나?”

부활 시기에 많은 사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꽃 피는 봄이 오면

에이미 에체베리아

미국 출신이며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로 활동하였다.
현재 본회 중앙 JPIC 코디네이터로서 정의 평화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일을 펼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산하 “생태 태스크포스” 팀의 공동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먼 옛날, 그분이 이 땅 위에 걸었을 때
키 큰 산딸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튼튼하게 뻗은 가지들이 아름다운 색깔로 빛났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는 베어져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되었다.
산딸나무 처지가 애처로워 그분이 약속하셨다.

“이 나무는 더 이상 크게 자라지 않으리라.
대신 가늘고 휘어진 가지를 지닌 꽃 피는 작은 나무가 될 것이다.
십자가를 닮은 꽃잎은 하나하나 붉게 물들어 내가 흘린 피를,
꽃술에 날카롭게 돋친 가시는 내가 쓴 가시관을 닮을 것이다.

이 나무를 보는 모든 이가
산딸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 나무를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나의 수난과 사랑을 드러내리라.”

〈산딸나무〉, 작자 미상



필자와 그의 집 마당 산딸나무

작자 미상의 이 글처럼,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산딸나무와 부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미국, 유럽 등 일부 문화권에서 산딸나무는 예수님의 부활과 새 생명의 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산딸나무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중동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아 십자가로 쓰일 수 없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는 우리집을 둘러싼 산딸나무를 볼 때마다 부활이 떠오릅니다. 이 나무는 모든 생명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상기시키는 자연의 알람이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산딸나무 전설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딛고 선 대지와 신앙에 자신이 깊이 연결되었다는 유대감을 가진 누군가였으리라 짐작할 뿐입니다. 그는 분명 육체적 삶과 영적 삶이 융합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산딸나무에게서 부활을 봄으로써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른 피조물과 결합되는 유대감을 느낍니다. 또한, 자연이란 보기 좋은 풍경 그 이상, 인생사 배경 그 이상의 존재, 즉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산딸나무는 하나님 사랑의 표징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집 산딸나무는 살아있는 몸으로서 제 동반자입니다. 계절마다 산딸나무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찬란한 봄꽃, 풍만한 녹음, 가을빛 물든 낙엽, 겨울을 견디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들을 봅니다. 저는 산딸나무

가 새와 다람쥐, 사슴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살아 숨쉬는 존재에게 맑은 공기를 주는 것을 봅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생명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산딸나무는 영적인 삶에서도 언제나 저와 함께해 줍니다. 슬플 때나 그 끝의 새로운 시작 때도, 속없이 즐거울 때나 분별력을 갖고 온전할 때나 항상 함께해주었습니다. 저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산딸나무로부터 영적인 통찰력과 가르침, 동행을 구하곤 했습니다. 인간 동반자들과는 사뭇 다른 이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신앙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산딸나무에게서 평정심을 갖고 가만히 있는 법과 제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와의 긴밀한 관계는 개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 나무들과 결을 같이하고 있을 때 정의, 평화, 피조물 보호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받는 곳에 더욱더 큰 연민과 공감과 연대를 느끼며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은 열망을 키웁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산딸나무 옆에 앉아 제 삶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어 기쁩니다. 독자 여러분도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연결됨을 경험하는 부활 시기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언젠가 산딸나무를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

일상적인 삶에서의 거룩함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서울 출신이며 2014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미얀마로 파견되었다.
북쪽 카친주의 미치나 교구에서 본당사목과 교구청 일을 해왔으며,
현재 같은 교구 가정사목국 국장과 신학교 영적 지도 담당을 겸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신자분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생긴 세속의 때를 없애고 하느님께 위안받기 위해 성당에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스러움과 속됨, 즉 거룩한 것과 세속의 것을 구분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속되다, 사제 성소는 결혼 성소보다 더 거룩하다, 성가는 거룩하고 대중가요는 속되다 등등. 이런 이유로 전

례 안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요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된 말로 끈대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면, 주로 종교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걸까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생활 하는 것, 친구들 만

공소 미사를 마치고



나서 노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며 거룩하지 않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하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어쩌다가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 모두가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우리 삶의 모두를 거룩한 것으로 본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은 더욱 가깝게 다가올 것이고, 매 순간순간 삶이 소중하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 현실의 삶 자체가 성사적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저는 그 성사적인 삶을 묵상하면서, 제가 미얀마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미얀마 북쪽 지역으로 발령받고, 한 공소에서 신자들과 미사 드렸을 때 일입니다. 신자들의 행동에 실망하고, 당혹스러움이 저를 집어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일하다가 휴면지를 뒤집어쓴 채 미사에 오는가 하면, 장을 보고 왔는지 온갖 보따리를 짊어지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미사 전에 술 마시고 와서는 성체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미사 중인데도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신자들의 행위가 무지하다며 비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의 거룩함을 그분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곳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 만나고, 관계하면서 이분들의 일상 삶 자체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며 거룩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무엇보다 선할 자체이신 하느님을 공경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이웃과 항상 나누려는 사랑의 마음과 자연의 섭리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에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덕분이라고 감사하는 이분들의 신앙 말입니다.



직접 키우는 동물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는 필자

비록 가톨릭교회가 요구하는 주일미사, 고해성사, 교회법상 의무들을 잘 지키진 않았지만, 삶 전체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교회의 요구에 너무나도 맞는 삶을 살고 있음을, 하느님의 최고 계명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하느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심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며 살기보다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남에서, 병석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생활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미얀마 지역 사람들에게서 배웁니다. 우리 현실 삶이 신앙의 삶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향해 계속 걷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미얀마가 많이 잊혀 있습니다. 여전히 군부독재와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터전을 잃고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작은 희망을 꿈꾸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살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자유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 걷기로 선택할 의무

이경자 크리스티나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00년부터 11년간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돌아와 한국지부의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를 하였다.
이후 아일랜드에 파견되어 이주민, 난민사목을 하였고, 이 활동을 이어가며
서울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동반하고 있다.



켈리 라티모어 작가가 오늘날 이주민들의 상황을 이집트로
피신하시는 성가정에 반영해 그렸다. © (La Sagrada Familia) by
Kelly Latimor, kellylatimoreicons.com

우리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이었고 우리 부모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 해도 가난
한 나라, 가난한 가정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렇다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목 활동 안에서
만나는 많은 이주민들과 난민들보다 또는 전쟁이나
재해, 사회 환경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나
라를 떠난 이주민들보다 저는 확실히 운 좋은 사람
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지역에 자리 잡고 이주민과 난
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이주민과 난민을 사
랑함으로써 환대해야 한다.”라고 하신 프란치스코 교
황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초대장이라고 생
각하며 응답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시(가명)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온 지 8
년 된 싱글맘입니다. 큰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아이
아빠와 헤어진 후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주한 대사관
으로 파견되는 직원 가정을 따라 가사 도우미 자격으
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2년 후 크리시만 남겨두
고 그 직원과 가족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시
는 비자가 만료되었지만, 본국에 있는 아들과 가족 뒷
바라지를 위해 한국에 머물기로 선택했고 그렇게 불
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서둘러 찾아야 하
는 처지를 딱하게 여긴 이웃이 소개해 주어 가정 방문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야무진 덕
에 다른 가정도 소개받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필자(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필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남자를 사귀어 임신하였는
데, 남자의 무관심과 연락 두절로 혼자 딸을 낳아 키
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크리시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두 살도 안 된
딸을 데리고 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우웁깁과
기저귀값마저 감당하기 힘든 형편에 어린이집도 보내
지 못하여 일하는 곳에 아이와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직간접적으로 난민, 이주민들과 함께하고
자 하는 이들의 도움을 연결하여 보육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크
리시의 딸은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릅니다. 아
르바이트가 늦게 끝나는 날엔 제가 대신 어린이집에
서 딸을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놀아 줍니다.

무비자 상태인 이주민과 돈이 없는 난민 신청자는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
이 있어도 큰 병원을 가야 할 때는 비싼 의료비를 감
당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크리시도 몸에 이상을 느
껴 무료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
았습니다. 종합병원 몇 군데를 함께 돌아다니며 도움
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한 병원이 지원해 주어서 올해
1월에 수술받고 이제는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거절당
할 수도 있었기에 서류가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마음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감사하
며 함께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언젠가 한 난민 신청자가 제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 이곳 생활
이 더 어렵고 희망을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난민으
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국 문화 안에서 살아가지가 아
주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머물기로 선택한
이유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할뿐더러, 설령 가더라도 일이 없어 가족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자 나
라나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먼 타국에 와서 이
토록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선택이란, 자유로움 안에서 해야만 하지만 불행히
도 난민과 이주민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신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살기로 선택한 이들입니다. 이
들이 우리와 같은 존엄과 존중을 받아야 하는 하느님
의 사랑하는 아들딸임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기로 선택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
니다.

“우리가 시작한 시노달리타스의 길은, 수많은 이주
민과 난민을 포함한 가장 힘없는 이들 안에서 우리 자
매 형제로서 사랑받고 보살핌받아야 할, 우리 여정의
특별한 동반자를 알아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야만 멀리 갈 수 있고 우리 여정의 공
동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2023
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산으로 간, 제주 해녀 아들의 편지

부재환 프란치스코 신부

제주교구 소속이며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사제로서
2021년 남미 페루로 파견되었다. 수도 리마에서 도시빈민사목을 하였고, 올해 초부터
고산지대 쿠스코 지역 시라니 교구의 본당에서 사목하며 안데스 원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운 어머니께!

올해 초 저는 리마에서 안데스산맥으로 소임지를 옮겼습니다. 한라산 두 개를 올려놓은 높이에 있는 퀘웨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어제는 산길을 운전하고 오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산맥과 골짜기들을 보며 어머니가 만나셨을 바닷속 또 다른 세상이 떠올랐습니다. 신기합니다. 산에서 바닷내가 나니 말입니다. 사실 이곳은 예전에 바다였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옛 종달리² 소금밭 같은 염전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

을 때 물속에 넣어 두셨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물 밖으로 들어 올리셨나 봅니다.

이곳은 산소가 부족해서 처음 온 사람들은 숨을 헐떡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한 고산병을 앓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지금은 적응이 되었습니다. 두통이 올 때 어머니가 물질하며 겪으셨을 잠수병이 떠올랐습니다. 생계를 위해 몇 번이고 숨을 참으며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셨지요. 어머니가 고된 삶을 이겨낸 것처럼 저도 이 고산병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개 공소 형제들의 영적 살림을 위해 더 높

필자가 사목하는 페루 안데스산맥 지역이다.

부재환
신부의
제주말
풀이

1. 바다 냄새(향기)
2. 어머니 고향인 제주도 어촌 마을 구좌읍 종달리
3. 무꽃 4. 감자 5. 예쁘게
6.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7. 바다



공소 가는 길에 동료 선교사가 찍은 필자의 뒷모습

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와 저를 이어주십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 제주도가 보입니다. 청보리도 있고, 들판에 유채꽃 닮은 노뽕꽃³이 만발하고, 정겨운 밭담도 눈에 들어옵니다. 또 지슬⁴이 천지입니다. 원산지가 바로 이곳이랍니다. 맛도 일품이고 모양도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요즘 지슬 꽃이 곱파하게⁵ 올라왔습니다. 농사가 잘되지 않는 이 산중에서 지슬은 구황 작물이자 주식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봄에 수확해 먹는 지슬이 이 멀고 높은 곳에서 왔다니 이들의 조상님들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으로 순박합니다. 처음 보는 동양인인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를 “빠드레, 빠빠”(아버지)라 부릅니다. 아이들은 모두가 푸른 자연을 닮았습니다. 팔 벌려 인사하면 달려와 안깁니다. 산길을 걷다가 양치는 아낙네와 목동들을 만납니다. 붓집 진여인네들도 자주 보는데, 이들 뒷모습에서 구덕⁶ 지고 개끄시⁷를 오가던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제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어머니, 제주 해녀의 아들은 이렇게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말의 뜻을 알게 되실 때 하느님께서 내 아들을 이곳



필자가 공소 미사를 집전할 때다. 축복을 받으려고 신자들이 제대 앞에 올린 물과 수확물이 인상적이다.

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대도시에 있다가 외딴 고산 지역으로 와서 새롭게 느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입니다. 리마에 있을 때는 향수를 느낄 새도 없이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 안에 피어나는 이 그리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감춰 있던 보물을 찾은 것 같은.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 어깨너머로 배운 가르침 하나하나가 소중한 삶의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함이 큰 힘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워할 것입니다.

얼마 전, 거동이 힘들어져 정밀검사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어머니 건강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거대한 산맥을 넘어 좀 더 빨리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 이를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를 대신해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 돌보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곳에 계신 수많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아버지들을 제 부모라 여기며 그분들을 돌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채꽃 향기 가득한 봄날에 잠시 ‘바다의 별’ 같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식구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안데스 산골짜기에서 막내 아들 올림

참 치유의 첫걸음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서울 출신이며 2010년에 사제품을 받고 대만에서 선교하였고, 미국 포담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전공한 후 중국에서 영성 강의와 피정 지도 등을 했다. 2019년부터 필리핀에 있는 골롬반회 '영성의 해' 원장으로서 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수련 중인 골롬반회 신학생들과 함께 필리핀 북서쪽 올롱가포에 있는 <프레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여러 선교 사목 중 하나는 물리적 폭력이나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을 위한 쉼터 운영입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친부나 친척, 동네 사람들입니다. 골롬반회 셰이 콜린 신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프레다센터를 1974년

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우리를 2층 “감정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열 평쯤 되는 공간인데 바닥에 두꺼운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벽과 천장은 방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상담사들은 아동들이 자신이 받은 성적 학대와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입 밖

프레다센터를 방문했을 때. (왼쪽부터) 필자, 설립자 셰이 콜린 신부, 골롬반회 신학생들,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민아 수녀님.



사진 제공: 권태문

으로 표현하게끔 도와줍니다. 치료 과정에서 아이들은 소리쳐 울며 머리를 쥐어짜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행동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분노와 상처를 표현하고 나면 조심스럽게 자기에게 닥쳤던 일들을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동반하기가 가슴 아프고 어렵지만, 진정한 치유를 위한 첫 번째 길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에 그 순간을 함께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공간의 벽을 따라 걸어보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 가슴과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바닥을 구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안에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눈물이 흘렀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분노와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더는 그 공간에 머물기가 힘들어 밖으로 나갔는데, 흥겨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추는 여자아이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아이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아이들이 울며 상처들을 토해내던 그 순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머무름 안에서 아이들을 학대했던 가족들과 친척들, 지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이면서도 그들 또한 어릴 적 같은 성 학대를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끔찍한 건 그 악의 고리가 세대를 걸쳐 가장 약한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이 악마적 행위는 감춰져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용서와 치유를 위해 피해자들의 상처는 끊임없이 외쳐져야 하고, 우리 모두는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은 아이들에게 사회적 종교적 용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실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가슴 치는 아이들의 외침이 악의 고리를 끊어낼 가장 용감하고 거룩한 행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외침을 모른척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 함께하며,



프레다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프레다재단 페이스북

이 아픔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자들, 기득권자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약자와 상처받은 이, 가난한 이를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이들의 울부짖음, 상처로 몸부림치는 소리가 더 크게, 더 넓게 퍼지고 들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악의 습성인 파괴적인 연속성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될 때 더 큰 고통이나 아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상처 입은 자로서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위한 간절한 바람이 나오며 그 바람은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고 아파할 때 나옵니다. 아프다고 스스로 소리쳐야 합니다. 침묵이나 외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 용서에는 갈등이 필히 따라옴을 인정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 갈등을 온전히 마주할 때 참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프레다센터에서 보호 중인 그 아이들이 치유를 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 중에 그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함께 식별의 여정을 걸어요

권세오 곤잘로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칠레 산티아고 출신이며 서품 이듬해인 2017년 한국에 왔다.
대전교구에서 본당사목, 전남 지역에서 이주민사목을 하였으며
현재 한국지부 신학원 부원장 겸 성소 담당, 지원사제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저는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에서 온 곤잘로 신부입니다. 어머니, 형, 여동생이 그곳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활발하고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게 쉽게 말을 건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제 성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선교사 꿈을 꾸는 분들을 골롬반 선교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성당은 잘 안 가고 친구들과 파티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 하셨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 곁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곤잘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질문하면서요. 병원 근처 성당에 들르곤 했는데 그곳 신부님을 보면 평화로워졌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볼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후 1년 동안 여러 수도회와 교구 성소 모임을 다녔는데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소록 맨 끝에 있던 골롬반회에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혹시 제가 골롬반회에 이메일을 보냈을 때 바로 답장을 받으면 성소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날, 골롬반회 성소국장 신부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성소 모임이 있으니 시간 되면 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답장을 받고서 ‘내가 왜 하느님께 이런 기도를 했지?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으니 살짝 무서운걸!’ 했지만, 하느님의 뜻이니까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제서품식 때,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는 곤잘로 신부(2016년 칠레)

저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고 인기도 많았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친구들과 어울려 거의 매일 술 마시고 그걸 또 제가 다 계산하곤 했지요. 그런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과연 친구들이 내 인생을 이해해 줄까? 이 친구들을 다시 못 보게 되진 않을까? 소중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었고 지금은 착하고 성실한 가장이 된 내 친구들과 여전히 잘 만나고 있으며, 그 자녀들 세례도 제가 다 주었습니다.) 두려움과 질문이 많았지만, 성소 모임에 꾸준히 나갔고 조금씩 조금씩 골롬반회를 알게 되었어요. 칠레지부의 성소 모임은 매월 첫째 토요일~주일 1박 2일인데,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심리 상담사와 면담도 하고, 골롬반 선교사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체험을 들으면서 나도 여기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키워갔습니다. 제가 만난 골롬반 신부님들은 일반 사람처럼 살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아닌 편한 친구와 같았습니다. 그들을 참 좋아했어요. 만약 내가 신부가 된다면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 영성의 해(수련기)를 보낼 때 30일 피정을 했는데, 그때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곱 살 때 기억이었어요. 저

는 수업하기 싫어서 날마다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교 안 성당에 숨어 있었지요. 그날도 성당 안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수사님이 저를 발견하시고는 수업 중에 여기서 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불현듯 떠오른 이 기억을 통해 하느님께서 저를 오래전부터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성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이 말하는 대로 따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며 하느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새로운 이해,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게 되며 걸모양뿐만 아니라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식별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면서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길은 물론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도전해 보세요! ✠

후원회

문 의

미사 봉헌

후원회 월례미사

	4월	5월	6월	7월	8월	장 소	문 의
서울(명동)	5일	3일	7일	5일	2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서울(돈암동)	26일	31일	28일	26일	30일	돈암동 본부	02-929-2977
인천	9일	14일	11일	9일	-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0일	8일	12일	10일	-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9일	10일	14일	12일	9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6일	24일	28일	26일	23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3일	28일	25일	23일	27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4일	29일	26일	24일	28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5일	30일	27일	25일	29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6일	31일	28일	26일	30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	-	13일	-	-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7일	22일	19일	-	21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21일	-	-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16일	-	18일	-	20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원주, 인천** 8월 미사는 없습니다.
- **안산** 4월 미사는 한 주 미뤄집니다.
- **제주** 7월 미사는 없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전달 사항

월정액

「아니」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

11

5 ☐☐5 ☐0 ☐2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품반외방성교회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골롬반 소식

첫 서약식



1월 22일,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지부의 본부인 싱갈롱 하우스(마닐라 소재)에서 본회 국제 신학원장 핀바 맥스웰 신부 주례로 첫 서약식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첫 서약자는 김진욱 사도 요한, 노승준 요한 바오로, 미안마 출신 도미니코 럼 자웅, 베드로 자우 늑 신학생입니다. 약속의 표지로 십자가를 받아 든 이들은 선교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 본회 회헌과 지침에 순명하며, 양성 과정에 충실히 참여할 것과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할 것을 하느님과 모두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선교사제를 향해 정진하는 네 명의 유망회원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들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롬반 단기선교체험 필리핀에서 진행

“선교를 위한 초대(심SIM, Society Invitation to Mission)”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골롬반 단기 선교체험>을 1월 16일~23일 필리핀에서 진행했습니다. 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오기백 신부와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 7명이 참가해 골롬반회가 활동하는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선교 체험을 했습니다. 본회는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골롬반 선교로 초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관련 기사 7~9쪽)

제29차 해외선교사 교육

1월 15일부터 3주간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진행한 해외선교사교육이 2월 2일 파견미사를 봉헌하며 총 16명(수도자 10명, 사제 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들은 남수단, 멕시코,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 12개 나라로 파견됩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대전교구,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위원장)는

강론에서 “기도하는 선교사, 가난하고 단순한 삶으로 현지인들과 삶을 함께하는 선교사, 동료들과 친교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남으로써 모든 이를 초대하는 선교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며 격려했습니다.



골롬반 소식

성삼일 전례



골롬반 선교사와 후원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성삼일 전례를 봉헌하였습니다. 성목요일은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 성금요일에는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그리고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가 파

스카 성야 미사를 주례하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전례를 봉헌하였고, 정성껏 봉헌한 예물은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돈암 동성당 빈첸시오회에 전달하였습니다.

평신도선교사 소식

2019년부터 한국지부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로 소임했던 노혜인 안나 선교사가 임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김선희 안나 평신도선교사가 지난 1월,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 중앙 리더십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선희 선교사는 2011년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마닐

라 근교 빈민 지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총본부가 있는 홍콩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 골롬반 평신도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소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선교사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필리핀에서 열린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 국제회의에 참석한 선교사들, 앞줄 한가운데 검정 옷이 김선희 선교사



골롬반 소식

동리춘 신부, 명동대성당 코스트홀에서 중국어 미사 시작



동리춘 베드로 신부(사진 가운데)가 1월 7일을 시작으로 매월 1주~3주 주일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내 코스트홀 소성당에서 중국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주에는 부산에서 중국어 미사를 집전합니다. 화교를 비롯해 중국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온 신자들에게 모국어로 봉헌하는 이 미사가 단비와 같이 반갑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리춘 신부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창설 100년 만에 첫 중국인 회원으로서 사제품을 받았고 2020년 가을,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범 제랄드 신부 선종 (1937.8.6.-2023.12.12.)

춘천교구에서 활동했던 범 제랄드(Gerard Joseph French) 신부가 2023년 12월 12일(현지 시각), 아일랜드에서 평화 가운데 선종 하였습니다. 향년 86세.

아일랜드에서 서품을 받고 이듬해인 1963년에 파견돼 속초 동명동, 소양로, 양덕원에서 본당사목을 하다가 영국지부 선교 홍보담당자로 발령을 받고 1970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심리치료를 공부한 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정신 분석 심리 치료와 상담 등을 하였으며, 그룹 촉진 전문가로도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재활센터 청소년들과 교정 시설 수감자들을 동반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충실한 사제로서 평생을 하느님께 봉헌한 범 제랄드 신부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범 제랄드 신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방송 tvN SHOW, 손 파트리치오 · 나 토마스 · 서 아오스딩 신부 소개



손 파트리치오 신부 나 토마스 신부 서 아오스딩 신부

tvN SHOW <프리한19>가 3월 4일 방송한 “한국을 더 사랑한 대한외국인19” 코너에서 “일제에 저항했던 푸른 눈의 신부들”이라는 제목으로 본회 손 파트리치오Patrick Dawson 신부, 나 토마스Thomas D.Ryan 신부, 서 아오스딩Augustine Sweeney 신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에서 활동하던 세 사제는 1942년, 항일운동으로 기소돼 형을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1999년 8월 15일, 이들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이 추서되었으며, 오늘날까지 항일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가톨릭 사제들입니다. 또한, 국가보훈부가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세 사제를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할 바 있습니다.



골롬반 소식

새로워진 열린미사로 초대합니다

2024년 열린미사가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이를 초대하는 골롬반 열린미사는 해외 선교사들의 활동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날 선교와 관련한 다채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한국지부장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했던 2월 미사는 대만에서 선교했던 김정웅 요한 보스코, 이지영 크리스티나 부부 선교사의 대만 선교 이야기를(위 사진), 3월에는 오기백 신부 주례로 단기선교체험을 다녀온 청년들의 나눔을 들었습니다(아래 사진).

4월~6월 열린미사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가 주례하며, 떼제 노래가 있는 기도과 미사를 봉헌합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 골롬반선교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에서 주일 미사로 봉헌하는 열린미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02-953-0613, mc1933@columban.or.kr



세계총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회 세계총회가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6월 14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지부 대표로 한국지부장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와 신학원장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가 총회에 참석합니다. 6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는 우리 회의 선교 방향을 정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회의에 참석하는 이들뿐 아니라 모든 골롬반 선교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롬반선교

2024년 봄호 vol.127



사진 제공: 부재환 신부

표지 이야기

본회 지원사제로 파견돼 페루 안데스산맥 쿠스코 지역에서 사목하는 부재환 프란치스코 신부(제주교구, 관련 기사 20~21쪽)와 2022년 첫 선교 발령을 받고 리마에서 실습 중인 이정락 베라노 신학생이 본당 어린이들과 함께했다.

편집실 Tel. 02-927-2705
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s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주소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발행일 2024년 4월 1일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발행인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편집지원 이지영 크리스티나 선교사
취재편집 김명기 김소영
번역 정하영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인쇄 서울프로아트



권세오 곤잘로 신부(왼쪽에서 두 번째)와 올해 있을 부제품을 준비하는 세 신학생
(관련 기사 4~6쪽, 24~25쪽)

해외선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 골롬반을 본받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문화 속에 살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정의를 위해 투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
이 삶은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또 내가 응답해야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십시오.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35세 이하인 젊은이

담당 권세오 곤잘로 신부

문의 vocation@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주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